

제목: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

말씀: 시편 3편 1-8절

다윗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지 않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1. 말할 수 없는 \_\_\_\_\_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을 \_\_\_\_\_ 있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나에게 \_\_\_\_\_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헌/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지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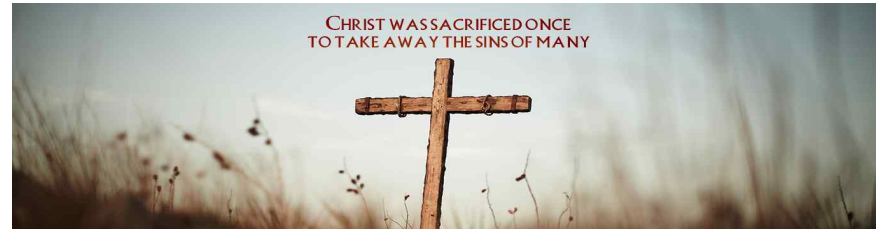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시편 3편 1-8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salm 3:1-8 구약 806 페이지 Presider
- 말씀 .....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더욱 힘찬 생활인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육신의 변화가 먼저다. 이전에는 무거운 것도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다. 팔이 아프고 허리도 더욱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육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변화가 확실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젊을 때에는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러한 생각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이전과 같지 않다.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나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에 따라 마음에서 정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조금 위험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힘을 요구한다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금방 뛰어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본다. 왜일까? 지금이라고 이전과 달라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마음에서 선뜻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나에게는 큰 변화다. 이전에 가졌던 도전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이전에는 그만큼 세상을 모르고 뛰어다니던 것이고 이제는 많이 보고 들은 가운데 그만큼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성이 나에게 제동을 걸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나를 알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가는 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일에는 한계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간을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아껴야 할 것 같다.

이틀 전 신학교 때에 나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교수직을 뒤로하고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신 후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도전을 주시고 췌장암으로 은퇴하신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분이 교회 사역을 30년 하신 후 하나님께 가시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육신의 건강으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3-4년 전 교회를 은퇴하시며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글과 짧은 동영상들로 메시지를 전하며 사셨다.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가신 것이다.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때를 알고 시작도 하고 끝맺음도 했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예수를 전한 것이다.

어쩌면 점점 활동 반경이 적어지고 결과와 열매의 기대가 적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뿐이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발동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OM (Operation Mobilization) 선교회의 창시자인 George Verwer 선교사님도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이민교회의 선배 박희민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결국 한가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오직 하나 뿐이다. 그런 면에서 노년은 오히려 복된 시간이고 더욱 믿음의 깊이가 생겨나는 활발한 기회라고 생각 된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5월 행사

어린이 주일	5월 7일(주)	
아버지 주일	5월 14일(주)	
목자 훈련	5월 14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5월 21일 주 중	
성령 강림주일	5월 28일(주)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